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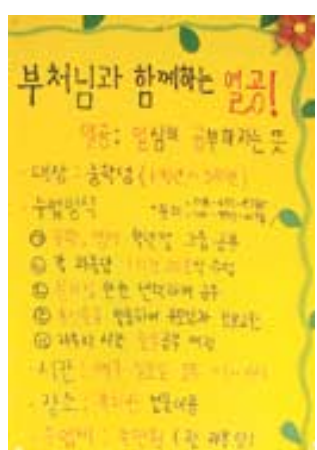
고풍스런 전통건축양식을 지닌 외형에 사찰은 물론 지역의 소식까지 알려주는 남양주 봉선사의 대형 게시판. 그 자체로 명물이다.



서울 화계사는 최근 깔끔한 간행물 비치대를 설치해 한곳에서 일목요연하게 불교정보를 접할 수 있게 배려했다.

# 사찰 게시판 변신은 무죄?

게시판(掲示板). 말 그대로 여러 사람에게 알릴 내용을 글로 내 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하는 판(板)이다. 게시판 하면 80년대 대자보(大字報)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90년대 모델전화선을 통한 BBS동호회 게시판 문화를 거쳐 지금은 강원도 산중 스님도 개인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질문과 답변, 검색어 조회까지 가능한 만큼 발전했다.



대구 영남불교대 관음사의 '공부방' 운영안내 게시판.

국가의 주요정책을 뒤흔들 만큼 인터넷 게시판 여론의 힘이 강해진 이 시대에 새삼 무슨 사찰 게시판이나 할지 모르지만 아직 정(情)이 넘쳐나고 사람 냄새 배어있는 오프라인 게시판을 활용법은 무궁무진하다. 대다수 사찰 게시판이 범화일정이나 순회버스 시간표를 붙여두는 것이 고적이었지만, 최근 일부 사찰들이 게시판을 새로운 포교매체로 적극 활용하면서 훌륭한 재미를 보고 있다.

### ■ 절의 '얼굴' 이자 말없는 '포교사'

8월 9일 오전, 남양주 봉선사(주지 월안, 일주문에는 한글 큰 글씨로 '운약산 봉선사'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말뚝폭염은 조각 햇볕조차 무조건 피해 다니게 할 만큼 위세가 대단했지만, 대인 합격기원 100일기도 입제법회가 있는 날인만큼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인합격기원 100일기도 입제법회를 지나 경내로 들어서기 직전 환경교육문화관 앞에 있는 대형 게시판이 확 눈에 들어온다. 신도 서너 명이 게시판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 어느 게시판과는 달리 다포지봉에 기와를 엮고 한껏 멋을 부린 외형도 눈길을 끌지만 게시판을 채운 내용이 만만치 않다. 각각 12m와 8m의 'ㄱ'자 형태 봉선사 게시판은 모두 9칸, 각각의 주제에 맞

## 봉선사, 20m 규모 9개 주제별 구성 사찰 과거·현재·미래 한눈에 '쏘옥' 적은 비용·노력으로 포교사 역할 '톡톡' 영남불교대, 신도·동문들에 공간 개방

게 사진과 글이 채워져 있다. △사찰 공지사항 △신도회 공지사항 △신도 참여마당 △행사과 동정(어린이 법회) △연륜에 비친 봉선사 △불사동참 △합창단 △환경 △우리아이웃 수목원(지역 소식) 등 다채롭다. 의정부에서 왔다는 김보연심(65) 보살은 "저기 종적이 사진이 걸렸다"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신도의 얼굴을 발견하고 신기하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절에 올 때 마다 게시판에서 낯익은 얼굴들을 찾는데 재미있다"는 김 보살은 "눈이 침침해 절에서 주는 사보(寺報)는 잘 읽지 못하고 인터넷은 사용할 줄 모른다"며 게시판에서 여러 소식을 접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한다. 강혜련(43) 보살도 "간혹 친구들을 데리고 절에 오는데 불교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게시판에 나온 내용을 보면서 봉선사를 소개하니 포교가 한결 수월한 것 같다"고 자랑했다.

### ■ 수천 명 동문·신도들의 커뮤니티 공간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해)는 게시판을 신도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살아 숨쉬게 하고 있다. 하루 1천~2천여 명의 불자들이 드나드는 도심 포교도량인 영남불교대학은 각 층을 오르내리는 계단은 물론, 본관건물과 새물동 불사를 마친 옥불보전 유지원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마다 각 공간에 맞게 다양한 모습으로 게시판이 마련돼 있다. 워낙 신도수가 많더니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게시물이 붙는 것을 막고 종무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10여곳에 게

시판을 설치해 신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범회 안내부터 복지봉사 동참안내, 신문기사, 신도회 활동안내, 행사안내 등 다양한 내용의 안내 게시물이 부착돼 있다. 불교대학 동문인 법경 가사는 "신도회나 봉사단체에서 알릴 내용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신도 동문들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말했다. 때로는 사진반이 멋있게 찍은 사진들을 붙여 작은 사진전이 열리기도 한다. 종무소는 단지 유효기간이 지난 게시물을 정리한다. 대구 관오사(주지 지도)와 불교사회복지회에도 사찰 입구와 계단을 통해 법당으로 오르는 입구엔 늘 오늘의 범회안내와 주제 등을 게시하는 '이동식' 게시판이 자리잡고 있다. 게시판 아래에는 관오사보와 108순례회보, 불교사회복지회 나눔집 등 관오사 산하기관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을 비치해 처음 사찰에 들어서거나 초심자들을 배려했다.

### ■ 불교계 신문·사보·회보를 한곳에서

광주 중심사(주지 진화)가 지리한 무등산은 하루 수만 명의 시민이 찾는 명산이다. 중심사 종무소앞에 아담하게 꾸며진 게시판을 등산객과 시민들이 피해갈 수 없는 명소다. 깔끔하게 단장돼 한번 더 눈길 가는 게시판은 사찰행사 안내뿐 아니라 삭막한 현대인의 마음을 정화하는 법구(法句)들을 선보여 무등산을 찾는 이들의 마음의 쉼터가 되고 있다. 서울 화계사(주지 수경도) 최근, 신도들이 불교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형 간행물 비치대를 종무소 앞에 새롭게 설치했다. '현대 불교'를 비롯한 각종 불교계 신문은 물론 사보와 불교단체들이 발행하는 회보 등을 가지런히 배례해 한곳에서 다양한 정보와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한 것. 사찰의 입구에서 그 절의 '얼굴' 역할을 하는 게시판을 활용여하에 따라 무궁무진한 매력을 발휘할 수 있다. 부임하면서 게시판 정비부터 했다는 봉선사 주지 월안 스님은 "인터넷이나 사보 발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게시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글·사진=이준엽·조용수·배지선 기자



봉선사를 찾은 불자들이 게시판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깔끔하게 정리된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의 게시판.



광주 중심사는 게시판을 활용해 무등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삶의 길로수학도 같은 법구를 들려주고 있다.

# 동신대학교 차(茶)학과 안내

## 1. 학과소개

최근 '웰빙'이라는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갈망, 건강지향, 문화지향, 편의성추구의 소비자 트렌드에서 볼 수 있듯이 차 문화와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고 유망한 산업분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 유기농 농법에 의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품종 개량, 선진 가공기술, 글로벌 마케팅과 체계적 유통에 의한 명품 브랜드의 개발, 차 효능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여 2007학년도부터 차(茶)학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산학협력에 의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과 중국 절강대학과의 학점교류에 의한 복수학위제(추진중), 국제 학술 세미나, 국제 차 문화 체험 행사를 통한 국제적 마인드를 갖추실 수 있게 됩니다.

## 2. 교육목적

본 학과는 차(茶)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론과 실험실습을 통하여, 차의 품종을 개발하고 차 산업화를 선도하며 차(茶) 문화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을 지향한다.

## 3. 교육목표

- 차(茶)의 제배 및 차 문화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 차(茶)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체계 확립
- 육종개발을 통한 명차 생산 및 차(茶) 품종의 자원화
- 국제경쟁력을 갖춘 차(茶)전문 인력 및 지도자 육성
- 차(茶)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체계 확립
- 제다기술 개발 및 명차(茶) 생산과 품질관리사 배양

## 4. 교과과정

- ◆ 1,2학년 -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및 정보전산 교육, 차의 역사, 다도, 철학, 전통예절, 향다법 등 기본 교양교육
- 차문화 고전연구, 차 제배 및 제다 등에 관한 기초이론 교육
- ◆ 3,4학년 - 육종 및 생산, 유통, 마케팅, 차 문화기획 등 차에 관련한 전공교육
- 품질평가학, 제다학, 품종개량학, 다예학, 차나무재배학, 차문화사
- 중국 절강대학교 다학계(茶學系)의 교류 협력(추진중)

## 5. 교육환경

- ◆ 교내: 삼매원(전통예절교육관), 산업융합과학기술융합생물연구센터(RRC),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BT)의 품종 개량실, 종자 은행, 의과대학, 한약재산업학과
- ◆ 교외(협력시설): 영농조합지리산명차원, 초의선원, 초의선사기념관(무안군 삼향면 소재), 보성군차농노조합

## 6. 자격증

- ◆ 다도사범증 기사 1, 2급(추진중), 제다사, 품종개량사, 품질평가사, 다예사

## 7. 졸업후 진로

- ◆ 기업체 및 학교 다도예절 전문강사 (유통업체, 백화점, 호텔 등의 매니저)
- ◆ 차 문화 행사 연출 기획자, 차 요리 전문가, 차 미용 전문가 ◆ 대학원 진학
- ◆ 국내외 관련기관 및 식품가공 연구소, 식약청 등의 공무원 취업
- ◆ 국제 차 전문가, tea 마케터, tea 매니저, 차 브랜드개발, 차 비즈니스리더, 차 무역업
- ◆ Tea shop 운영, tea consulting, tea house ◆ 차 산업 전반에 대한 창업

◆ 입학안내 : 동신대학교 입학관리처 ☎ 061-330-3333) www.dsu.ac.kr